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822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1월 20일 (음력 10월 23일) 목요일

"추위엔 모닥불이 최고" 첫눈과 함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19일 새벽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다. 이날 광주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다. 추위는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대회 유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 "예산 요청 말라" 광주시에 조건부 승인

평창·대구·인천 등에는 전폭 지원…배경 의심

문화관광체육부가 광주시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유치 사업'에 대해 사실상 정부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제 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 정부가 광주 U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문광부가 전남도의 F1 특별법(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국고 지원에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다른 지역의 국제대회 유치 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 스포츠 행사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 갑)에 따르면 문광부는 이날 국제체육대회유치 심사위원회를 개최, 광주시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문광부는 승인 조건으로 우선 2015 하계 U대회 유치 활동 비용을 전적으로 광주시가 부담하고 경기장 건설 등 대회 관련 시설 투자를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시가 하계 U대회 개최권을 획득한 이후, 당초 계획 이외의 추가사업을 만들어 정부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광부의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광주시의 하계 U대회 유치를 도와줄 수 없다는 통보로 해석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즉 정부가 국가 신인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국제대회 유치활동을 돕기 위해 2010년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에 162억원,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에 5억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3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문광부는 지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1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천 NCC 공장 가동 중단

국내 최대 규모…실물경기 위기 지역 제조업체 확산

국내 최대 규모의 나프타 분해시설 업체인 여천 NCC의 제 3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국내 실물경기 위기 여파가 지역내 제조업체에까지 미치고 있다.

또한 여수산단내 L·G업체 등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수요 감소와 환율 불안 등으로 생산계획을 20~30% 낮추고 있어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등에 따르면 여천 NCC는 이날부터 3개의 공장 가운데 1개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틸렌 등 연간 180만t의 제품을 생산해오던 여천 NCC는 금년에 126만t(30%)으로 생산량을 줄여, 이를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해온 가공업체들도 생산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천 NCC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 최대 수요처인 중국 납품물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에 따라 원료 납품가격이 떨어져 제 3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19일 현재 t당 31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나프타 가공제품인 에틸렌 가격은 t당 335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료와 가공제품의 가격차이가 20달러대에 머물 경우 공장을 가동할수록 채산성이 줄어들어 공장을 멈추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천 NCC 관계자의 분석이다.

여천 NCC는 이미 지난달 10일 가동률을 80%대로 낮춘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70%까지 낮춘 바 있다. 1천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여천 NCC는 지난해 4조5천억원에서 올해 6조5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나,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지난 2001년 이후 두번째로 적자경영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여수산단내 86개 석유화학 업체의 실질 공장가동률은 지난 9월에 비해 10~2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물경기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北 문제 한국과 협력 통해 해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본보 단독 인터뷰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북핵 등 대북문제에 대한 오바마 당선자의 기본 입장은 현재 한국 정부의 6자 회담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광주시 서구 한 호텔에서 본사와 단독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과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며, 여기에는 비핵화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 FTA와 관련 "만약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으면 재협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자유·공정무역 등의 맥락에서 FTA를 볼 것이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경제의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미 FTA도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현재 운영중인 광주 아메리칸 코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90년대에 폐쇄된 영사관과 문화원을 재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광주 아메리칸 코너를 통해 광주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방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9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
조성식 선생 초청 … 오늘 오후 2시 광주 KT빌딩

가자! 에너지의 세계로
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대학생 에너지 캐러밴
■ 주최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주관 : 광주일보사
■ 일시 : 2008년 11월 22일(토) 오전 9시
■ 장소 : 조선대 제2공학관 1층 대강당
■ 참여 신청 및 문의 :
광주일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총무국 (062-2200-514)
※참여 대학생들에게는 기념품과 점심식사 등을 제공합니다.